

<2010년 8월 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모르는 자가 고생도 많이 하고, 고통도 많이 받고, 헛수고도 많이 하게 되고, 망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해를 많이 주기도 한다.
2. 하나님도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고 쓰면서도 모른다.
3.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쓰면서 귀한 것을 알기는 아는데, 조금 알거나 보통으로 알고 쓰니 기쁨과 보람도 보통으로 누리고, 얻는 것도 보통으로 얻는다.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귀하게 알고 써야 100% 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쓰게 된다. 또한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더 개발하고 만들어 빛나게 한다.
4.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귀하고 중하며 그다음으로 자기가 귀하고 중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인생들이 귀하고 중한 것을 알고, 만물들이 귀하고 중한 것을 알고 살면 된다.
5.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귀하고 중한 것을 알지만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만큼 조금만 사랑하고 산다. 사람은 아는 만큼 귀하고 중하게 여기며 산다.